
언어구분	KOR	논문구분	원저/구연	논문분야	종양
논문제목	악성 골종양의 분절성 절제 후 골이식을 이용한 재건술에 대한 연구: 저온 열처리된 자가골 이식과 동종골 이식의 비교				
영문제목	LOW-HEAT TREATED AUTOGRAFT VERSUS ALLOGRAFT FOR INTERCALARY RECONSTRUCTION OF MALIGNANT BONE TUMORS				
발표자	한일규	책임저자	김한수		
저자	한일규, 조환성*, 강현귀**, 김준혁**, 최은석, 김한수				
기관명	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,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*, 국립암센터 정형외과**				

서론 : 악성 골종양으로 인한 장관골의 분절성 절제(intercalary resection) 후 골이식을 이용한 재건술 중 국내에서는 저온 열처리된 자가골(pasteurized autograft)을 많이 사용해왔다. 동종골과 비교하여 저온 열처리된 자가골의 장점으로 해부학적, 생물학적으로 적합한 점 등이 알려져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악성 골종양 분절성 절제 후 재건시 사용된 저온 열처리된 자가골 이식과 동종골 이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악성 골종양으로 인한 장관골의 분절성 절제(intercalary resection) 후 골이식을 이용한 재건술 중 국내에서는 저온 열처리된 자가골(pasteurized autograft)을 많이 사용해왔다. 동종골과 비교하여 저온 열처리된 자가골의 장점으로 해부학적, 생물학적으로 적합한 점 등이 알려져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악성 골종양 분절성 절제 후 재건시 사용된 저온 열처리된 자가골 이식과 동종골 이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.

결과 : 불유합은 저온 열처리된 분절성 자가골을 이용한 군에서 유의하게 빈발했다(16% vs. 40%, $p=0.04$). 골유합까지의 소요된 시간은 두 군간에 유사하였다(15.5개월 vs. 14.9개월, $p=0.82$). 최종 추시때까지 저온 열처리 군 2례(14%), 동종골 군 1례의 이식골이 제거되었다. 추시 기간 중 이식골의 골절은 두 군에서 각 1례씩 발생하였다.

결론 : 악성 골종양의 분절성 절제 후 골이식을 이용한 재건술 시 동종골 이식이 저온 열처리 이식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.

acknowledgment :

intercalary, reconstruction, segmental, allograft, low-heat treated, pastuerization
